



# 가온다솜 | 36호

가온은 세상의 중심,  
다솜은 사랑의 순우리말입니다

실로암호명의집은  
거주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고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미션·비전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들의 쉼터,  
행복한 실로암효명의 집

1

자립중심의 거주시설 모델구축  
자립중심 전문화 체계구축

2

거주인 중심의 서비스제공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인권과 안전 최우선의 시설운영  
거주인 욕구에 부합하는 행복추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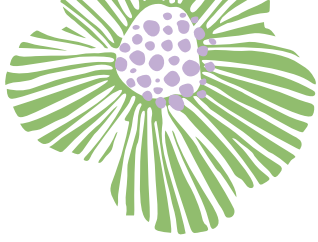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나눔실천  
장애인 인식개선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 02 미션/비전
- 03 목차
- 04 실로암 컬럼
- 05 신규프로그램 음악치료
- 06 효명의집 이모저모
- 08 효명의집 가족을 소개합니다.
- 10 소중한 나의 하루
- 11 마음을 전하는 글
- 12 신입직원을 소개합니다.
- 13 건강 컬럼
- 14 외부지원 및 도움의 손길
- 15 나눔이 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원장	법인명	법인대표	거주인정원	30명
김무경	사회복지법인	김선태 목사	거주인현원	29명
설립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직원정원	33명
2010년 7월 19일			직원현원	32명

발행일 2022년 8월 통권 36호    **법인대표** 김선태  
**발행인** 김무경    **편집인** 박은애, 장혜승, 김순희    **발행처** 실로암효명의집    **주소** (1142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쇠장이길 656  
**전화** 031) 876-2900    **팩스** 031) 876-2990    **홈페이지** <http://www.silwelnh.or.kr>





## 실로암 컬럼

2020년 6월 30일 사회복지사로서는 정년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법인 이사회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원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2011년 입사 이후 원목으로서 사회복지사들과 똑같이 장애인 거주인들을 돌보면서 목사로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하며 깨닫게 되었기에 더 늦기 전에 제도권 교회로 돌아가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의 목회를 하리라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강신무(降神巫)처럼 이 목사의 길을 거부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 복음화를 사명으로 알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나안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와 같이 개척을 하자는 분들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섬기며 정들었던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모두 천국으로 환송한 후에 여길 떠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훌쩍 떠난다면 그 원망을 얼마나 들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원장과 원목으로 5년 더 섬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원장 취임 시작과 함께 2020년 1월, 첫 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은 물론이고, 집단 거주 취약계층인 요양병원 및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자 및 종사자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게 되면서 긴장의 나날이었습니다. 거주인 모두 외출, 외박 금지와 전 직원 동선을 최소화하여 장애인 거주인들을 섬겨왔습니다. 곧 끝나겠지, 했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가족들 면회조차도 할 수 없는 장애인 거주인들은 더욱 소외되고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암효명의집(Hyomyoung House Of Siloam)은

고령의 시각장애인들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30명의 거주인 가운데 17명의 단순 시각장애인과 13명의 발달장애인으로 지적, 자폐, 지적 뇌 병변, 지적 청각, 지적 시각 등 중복 장애인들과 97세 고령으로 청각장애만 있는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별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녀는 층별로 분리되어 있지만, 생활실은 같이 기거해야 하는데 생활실이라도 따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발달장애인들의 돌발 행동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늘 피해를 보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더 짓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넓은 공간이 있으면 코로나19처럼 집단감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의 설립 정신에 맞게 전 직원이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섬기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어떻게 찾느냐고, 섬긴다는 의미는 장애인들의 삶의 기쁨과 고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로암효명의집은 우리의 최종 목적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징검다리의 사명을 다하여 장애인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김무경

## 음악치료

음악치료사 김은정

음악치료란 음악을 치료의 매개체로 사용하여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든 음악성이 내재하여 있습니다. 이런 음악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이며 특별한 감정적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접근하기 좋은 활동입니다.

실로암효명의집에서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동 행동이나 자학 행동, 비정상적인 언어적 발음, 표현능력, 감정 조절 등 역기능적인 상태에 있는 신체, 심리, 정서 기능을 향상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음악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로암효명의집에서 진행되는 음악치료 활동은 자유로운 자기표현, 과제 수행을 통한 만족감 증진,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리듬 악기 탐색

및 연주, 색깔 악기 연주하기,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 및 신체활동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음악 활동 시 커지는 미소를 볼 때마다 함박웃음이 지어집니다.

또한 시각장애거주인의 경우 청각적 민감도가 발달되어 있기에 음악을 도구로 활용하였을 때 치료효과가 높으며, 스트레스 해소, 내재화된 감정 표출과 같은 심리정서 지원에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거주인들이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음악 안에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이를 통한 긍정적 관계를 형성을 도모합니다. 앞으로도 음악치료 내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실로암효명의집 거주인들의 필요와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한 생활의 증진을 기대합니다.





## 효명의집 이모저모

### 실로암장애인복지관 직원 봉사활동

시각장애 직원들 중심으로  
안마봉사, 공연봉사, 핸드폰시  
및 제빵봉사가 5월 1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 소규모 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나들이가  
어려운 상황이라 소규모로  
평화수호박물관, 마장호수,  
회암사지박물관, 옥정호수공원에  
다녀왔습니다.

### 가족면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가족 면회가  
대면으로 진행되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발달장애 대상 프로그램



발달장애 거주인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 건강을 위해 스누젤렌, 음악치료, 휘바스스포츠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 12주년 기념행사



실로암효명의집 12주년 기념식 및 음악회가 7월 19일 진행되었습니다.

## 특별행사

설날 행사(1/27), 장애인의날 행사(4/20), 어버이날 행사(5/6), 외식(2/18, 3/16, 6/10, 7/7)이 진행되었습니다.



## 효명의집 가족을 소개합니다.

### 늘 그 자리에 \_ 이승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언제나 따뜻한 인사로 아침을 열어줍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아침을 열어 갈 수 있음에 감사와 고맙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인사를 건네주시는 든든한 이승옥 어르신입니다.



### 할미꽃 \_ 이숙경

룸메이트 어르신과 항상 마당 산책하러 나가는 이숙경 어르신! 실로암효명의집 마스크트인 피스(개)와 고양이들이 있는 지 인사를 건네며 일과를 시작합니다. 어르신의 방식으로 느릴지라도 자신의 노하우와 규칙으로 일상을 지내며 어디에서든 희망을 찾아내는 어르신의 현재 모습은 꽃 그 자체입니다.

### 쿨하게 가슴은 뜨겁게 \_ 김인경

동네 할머니처럼 늘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분위기 메이커 김인경 어르신은 쿨하고 유쾌한 농담으로 주변을 밝게 해주는 능력자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으로 때로는 아버지 같은 진지함으로 때로는 할머니 같은 따뜻함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도 웃고 당신도 웃으면 이렇게나 좋은 것을!







### 조용한 따뜻함 \_ 전성권

언제나 조용히 묵묵히 본인의 할 일은 본인이 잘하시고 때로는 직원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시는 어르신입니다. 열정을 쏟는 일에는 열정을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일에는 부지런함을 조용하게 보여주는,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어르신입니다.

### 다이어트도 즐거워 \_ 이광재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깎두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걷는 상남자입니다. 요즘 광재씨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실로암효명의집의 밥이 너무 맛있어서 몸무게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며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즐겁게 다이어트 하는 광재 씨를 응원합니다.



### 나는야 소식통 \_ 백하청

라디오를 듣는 것을 좋아하며 특히 뉴스를 자주 듣고 좋아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대화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 또한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발성이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것도 매우 좋아하시며 성가대 및 노래 부르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 소중한 나의 하루



### 거주인 조영순

2022년 6월 14일 며칠째 민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우울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자는 어릴 적 고향에서 만난 깨복쟁이 친구인데 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집에서 생활한 지 오래되어 항상 건강이 걱정되는 친구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뜨개질을 함께 하고 서로 집 안도 왔다 갔다 하며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사이좋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최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되었습니다. 아침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아 마음이 찝찝한 상태로 양주 옥정호수공원으로 나들이를 하러 갔습니다. 날은 덥고 몸은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점심으로 냉면을 먹으면서 민자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던 그때 민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화기 너머 민자의 목소리로 들으니 그동안 걱정했던 마음이 사르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날 날씨처럼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다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걱정으로 찝찝했던 마음이 행복함으로 변하는 좋은 기억의 하루였습니다.

### 거주인 이영애

2022년 6월 24일 피복 구매를 위해 마트를 가기로 한 날이었다. 어떤 옷을 살지 설레는 마음으로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몸도 무겁고 짜증도 나고, 허리와 다리가 아파 쇼핑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의정부에 있는 큰 마트로 향했는데 가는 길에 창문을 열어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니 매우 상쾌한 기분이 들었고, 노래를 부르며 선생님과 대화를 하며 즐겁게 웃으니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는 연신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여기저기 의자가 있어서 무리하게 걸지 않고 쉬어가며 쇼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나는 바지 두 벌을 사고 티셔츠와 파자마를 구매했습니다. 내가 몸에 옷을 대보자 판매 직원이 '아주 잘 어울린다.'라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쇼핑을 나온 거라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칭찬까지 받으니 날아갈 듯 기뻐했습니다. 최근 몸이 무겁다고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려고만 했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것도 내 마음이 문제였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기운 내서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최근 들어 깊게 생각하고, 가장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날이었습니다.



## 마음을 전하는 글

2022.7

실로암효명의집 사무국장 박은애

실로암효명의집에서 사무국장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 효명의 집으로의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 출퇴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사회복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노인복지’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현장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현재 실로암효명의집에는 시각장애 거주인과 발달장애 거주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거주인에게 실로암효명의집은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으로 가는 준비를 잘하도록 돕는 가교역할을 하는 곳입

니다. 발달장애 거주인에게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게 하는 보금자리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가족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생활하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 화목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실로암효명의집 식구들이 “행복, 감사, 기쁨, 희망, 축복”의 말들로 서로의 영혼을 맑게, 실로암효명의집을 더 밝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암효명의집이 늘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웃음 짓는 집이 되기를 기원하는 어느 거주인의 마음처럼, 저도 이곳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입직원을 소개합니다.



### 조성일(생활재활교사)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거주인과 직원 모두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모든 거주인 직원에게 전해지길 바라고 앞으로 함께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 한형석(생활재활교사)

효명의집 어르신들과 지내는 것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잘 대해주셔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어르신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황진향(생활재활교사)

실로암효명의집에 근무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거주인들의 따뜻한 환영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보답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황선교(생활재활교사)

거주인과 함께 추억을 쌓고, 즐거운 날들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거주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생활재활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훈(생활재활교사)

겨울에 입사하여 어느덧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면 사계절을 거주인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나의 형제, 부모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 펜더믹 속 노인 우울증 극복하기

건강지원팀장 최영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더믹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내며 본 시설 내 거주인들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해 노인 우울증에 대해 함께 풀어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려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만남이라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로막히면서 외로움·고립감·단절감이라는 감정을 일으키며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는 우울감이나 절망감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사회활동은 노인 우울증의 중요한 보호 요인이며 60세 이상 노인 4,751명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 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친목 모임, 봉사활동, 정기적 기부 등 사회활동에 하나라도 참여한 사람은 우울 증상을 보일 확률이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0.6배에 불과했고 심지어 세 가지 이상의 사회활동에 참여한 경우 우울 증상을 보일 확률이 0.28배로 떨어졌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선 우울증이 심하면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반 성인의 우울증과 달리 노인성 우울증은 사회활동 감소, 신체 증상 호소, 기억장애, 집중력 장애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펜더믹 상황으로 사회활동을 모두가 자제해야 하는 시기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 지혜롭게 대

처하기 위해 대면 접촉 없이 사회활동을 할 방법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유대감'과 '지지'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봅니다. 건강은 잘 챙기고 있는지, 식사는 잘하는지, 자식들은 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보며. 그간에 아주 외롭지는 않았는지,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괴롭게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힘들었다고 답한다면 진심으로 서로를 다독여 줍니다. 이때 느껴지는 뜨거운 감정이 바로 코로나로 인한 노인 우울증의 백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로암효명의집 어르신들의 앞에 와있을지 모를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와 말벗 서비스, 산책, 나들이 등의 야외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과 보호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지속하도록 중재자의 역할도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펜더믹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라고, 실로암효명의집 가족 모두 어려운 상황을 건강히 잘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 외부지원 및 도움의 손길

2022년 05 SSCL 장애인 신체기능향상 프로젝트  
“꿈의 엔진을 달다.” 선정(음악치료 교구)



### 후원 안내 ☎ 031-876-2900

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후원	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 계좌번호 :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효명의집
결연후원	장애인과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결연후원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해피빈2. 자동이체	<a href="http://happylog.naver.com/silweinh.do">http://happylog.naver.com/silweinh.do</a>

### 후원금 납입방법

1. CMS후원 (출금이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MS는 후원자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어 복지관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는 후원 방식입니다.</li> <li>- 효명의집에 비치된 후원신청서나 홈페이지 후원 신청에서 CMS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i> </ul>
2. 자동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달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li> <li>-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 은행에 가셔서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li> </ul>

# 나눔이 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사는 이야기

## 1월~7월 후원금 결산보고

(단위: 원)

세입		세출	
이월금	24,797,514	사무비	5,342,600
지정후원금	3,392,080	재산조성비	13,799,900
비지정후원금	26,920,860	사업비	2,478,090
<b>합계</b>	<b>55,110,454</b>	<b>합계</b>	<b>21,620,590</b>

후원자 현황(1월~7월)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자(2022년 1월~7월)

#### 단체

무지개풀, 아워홈, 장애인개발원, 태원엘리베이터, 해피빈

#### 개인

권순현, 김경민, 김경애, 김덕규(서대원), 김무경, 김미경, 김민경, 김선태, 김순희, 김은철, 김은혜, 김은희, 김인자, 김재훈, 김정자, 김정현, 김지혜, 김태웅, 김태웅, 김태훈, 김현도, 김형도, 김호직, 남성우, 노형지, 무 명, 박 솔, 박성일, 박수정, 박용순, 박은애, 박인수, 박주희, 방옥자, 신혜경, 안미숙, 안해술, 오창래, 유병숙, 유자영, 유희진, 윤영기, 윤찬호, 이강선, 이강일, 이광열, 이봉희, 이순희, 이승욱, 이영숙, 이영순, 이영태, 이용석, 이은경, 이재영, 이진실, 이현규, 이혜지, 임영희, 장혜승, 전승미, 정구연, 정성민, 정세훈, 정진아, 정희철, 조경조, 조미경, 조성일, 조성훈, 진순복, 최동익, 최영아, 최영훈, 최준호, 한재근, 한형석, 함은창, 함지훈, 함현식, 현재순, 홍성현, 황선교, 황진향

## 자원봉사 안내

자원봉사자(Volunteer) - 세상을 움직이는 1% 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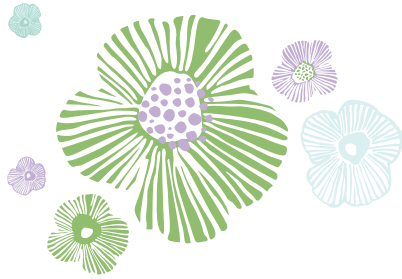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과 시간의 자발적 나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1. 신청대상

- 중.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대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노력봉사 : 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보조(생활실정소, 안내보행, 말벗 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 문화행사봉사 : 거주인을 위한 문화행사 보조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등)
- 전문봉사 : 전문기술 소유자의 능력을 활용한 봉사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 교육지원 : 거주인을 위한 교육훈련 보조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웃음치료 등)

### 2. 신청방법

1. 모집분야확인 2. 내방 및 전화상담 3. 봉사영역확인 4. 봉사일정협의
5. 신청서 작성 및 교육 6. 활동진행 및 평가 7. 인증서 발급



세상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만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 나의 일, 만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새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다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로암효명의집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앞장서며 입소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입소 절차

- 1 입소 신청(주소지 읍면동 장애인복지과) ▶
- 2 관악구청 입소 의뢰 ▶
- 3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서비스지원 종합점수 성인240점, 아동 190점 이상)
- 4 통보 ▶
- 5 입소계약 ▶
- 6 입소